서구, 광주신세계와 여고생 2천명 안전 지킨다



서구와 광주신세계가 여고생들에게 호신용 경보기와 업사이클링 안전키링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관내 여고생들에게 호신용 안전키링 전달…민관협력 안전망 구축

서구 제안으로 200명 지원사업을 전체 여고생으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 관내 여고생 2천여 명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으로 확대됐다.

서구는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와 함께 12일 상일여고, 풍암고, 상무고 등 3개 고등학교 여학생 1826명에게 호신용 경보기와 업사이클링 액막이 명태키링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광주여고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서구가 청소년 안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하자고 제안하면서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부 학생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소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3월 고객들이 사용한 선물용 보냉백을 수거해 지역 에이핸즈협동조합의 해체·봉제작업을 거쳐 액막이 명태 모양의 업사이클링 키링을 제작했다.

이와 함께 위급상황 발생 시 주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호신용 경보기와 LED조명 기능을 더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휴대하며 활용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완성했다.

서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연결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이들이 아침에 집을 나서 학교에 가고 저녁이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당연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안전키링이 여고생 2천여 명을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자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안전을 강화한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폐보냉백을 재활용해 제작한 키링에 안전 기능을 더해 환경보호와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담았다. 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남구, 부모·자녀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탐구'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탐구교실 운영

초등학생 4~6학년 대상 총 5회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부모와 자녀가 과학의 원리를 배우면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탐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탐구교실이 오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과학과 발명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과학 원리 탐구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이론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체험형 수업을 통해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 15가족이다. 광주 용봉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이경학 교감이 강사를 맡아 교육을 진행하며, 5주 동안 매회 90분씩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에 다루는 주제는 초등학교 과학 교과와 연계한 실험·실습 활동으로 구성됐다.

탐구교실에 참가한 부모와 자녀들은 오는 14일 첫 번째 수업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 탐구'를 주제로 물체의 운동과 힘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어 21일에는 '비행기 원리와 모스 글라이더'를 통해 비행 원리를 알아보고, 28일에는 '달걀이 자유낙하하는 날'을 주제로 낙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체험한다.

또 12월 5일에는 '전반사와 광섬유'를 통해 빛의 성질과 활용 원리를 배우고, 마지막 수업인 12일에는 '찌릿찌릿 정전기 이야기'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전기 현상을 탐구한다.

남구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탐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번 탐구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을 어렵고 낯선 학문이 아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이 돼 실험과 탐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은 단순히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관찰하고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실험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인을 찾아보며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과학 원리를 배우면서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과학에 관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의 관심 분야와 학습 성향을 이해하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종수 기자



부모 자녀 위한 프로그램 진행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